

제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2009-10-29

2:00 PM Present

No. 1

우선 해봉이 수감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322332

올해로 제1회가 되는 한국여성지도자상
CITI 그룹의 후원으로 인하여 한국YWCA가 함께 하신
부메스터 회장의 뜻에 따라 2년 치 행사가 동시행되리
라 기대를 지니고 계신데 감사하며 진행되길 바랍니다.

YWCA는 여성들이 주체되고 미시노를
알고 있는 일제치하의 박탈감에서 이젠 억압 속에서
여성들이 깨어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여성인식과 함께 하고

지난 89년동안 여성들이 남들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한 이후에 남들보다
여성들의 지도자양성에 힘써 활동하고 있는
YWCA의 여성지도자상 시상식 더욱 빛이 날것
Date 10/29/09 IN YOUNG

현제선생은 내부교양지교회에서 (이 시시한후
대강장보 3명, 중노지교선생 4명, 후보선생 4명 등
각각 추천하고 중앙지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각 부를 맡기로
한것으로 하여 수습선생 선출하게 되었음.

앞서 후보들 가운데서 한사람의 수습선생 선출과 동시에 위도장이
이내리만 추천하고 한중애생지교선생은 각 부에서 위도장과
50원씩 10명 별반 이내리 선출과 나쁜의 개화, 미려내생지교로
에 이거는 양항량을 중요한 기점으로 하고 있어
더욱 이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애생지교선생의
대강으로 한중애생지교선생, 중노지교선생은 입교장 감독함께,
그리고 후보선생은 다수 추천이래함께 시수함하게 된것은
이상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여파지기에 자랑스럼함.

KEUN YOUNG

대상 수상자인 함연대박사님은 장애인에 복지증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일구려진
사회인사의 노력을 일깨워 내딛으셨네.

스스로 장애를 당고 의욕이 되었고
그 권위를 흔들지 장애인들이 사회의 차별 없는
자유인으로 살수 있도록 힘쓰며 실천하셨습니다.

그의 헌신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세계 장애인에게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북돋이기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함연대 삼지창>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모로서이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이 돋보입니다.

앞다르게
 제1회 지도자상의 인오경 (외출의형 여자 핸드볼 리 감독은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여자 핸드볼 경기의
 공개 대결인 지도자로 활동해 오다

후배들에게는 여성스포츠인으로서의 비전을,
 국민들에게는 첫 감동을 선사 했음.

주변에서 점차로 충심으로 여태임을 알아차리는
 여성스포츠인에게 불꽃이 피어날수록 근심으로
 투박한 모델이 되어 주었고,

국제스포츠 행정가로서의 꿈을 갖고
 무한 발전하는 지도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인정 되었음.

54로 제정된 특별상의 말과 함께 이사장님은
 아이들은 행복한 기쁨을 가진 어린이가 되기를
 신념으로 6.25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련으로
 부모를 잃은 우리 나라의 불우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쁨을 베풀어 주고 그들이 훌륭하게 자랄수 있도록
 하는 일에 부친의 뒤를 이어 평생을 바치고 계십니다.

황금이사장님은 부친이 대궐에서부터
 한강의 제2의 고장으로 있어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의 행동으로 보여 주신 감동적인 용기로
 나의 모범이 되고 계십니다.

제 7 회 호국애상 지르기를 시상으로
 해부터 수상자들에게는 빛나는 새해 다짐
 이를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더없는 자랑입니다.

이상이 제정된 친절한 의미는
 영대 수상자들의 찬미와 지지를 받으며
 앞으로 좋은 새해들에게 빛이 되어
 우리사회에 더 많은 지지를 베풀어 줄
 의지를 다짐합니다.

이 시상식을 통해 우리모두가
 우리의 삶을 대중에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